

제정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정

李 仁 浩

(서울大學校 人文大 教授)

<차 례>

- I.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
- II. 초기 인민주의와 마르크스

- III. 마르크스주의의 재발전
- IV. 결 론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함은 누차 입증되어 온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제3세계의 급진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의 학계에서도 새로이 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마르크스주의가 가지는 知的 호소력은 매우 다층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었다는 점에서 제정러시아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러시아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흔히 잊혀지고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는 볼셰비키혁명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곧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정은 그 사상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는 성공을 거둔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된 레닌주의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흔히 고려되어 왔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의 정치체제가 마르크스가 그리던 이상향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이 분명해졌으나 인간해방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은 세계 도처에서 새로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知的 풍토를 생각한다면 소련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수용과정을 승자의 이야기로만 엮어가는 주제 접근자세는 다시 고려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제정 러시아에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레닌과는 견해를 달리했던 멘셰비키 계열의 혁명사상가들 이외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한때 마르크스주의

자로 자처했었으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이론을 수용했었다. 그들 대부분은 후에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혁명세력의 주류에서는 제거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들을 배척시킨 것이 무엇이었으며 무슨 이유로 그들은 레닌의 노선에 반대했었는가를 살피는 일은 오늘날 소련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뿐 아니라 하나의 사상체계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함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자료와 시간, 그리고 그밖의 제약이 많은 상황하에서 쓰여지는 이 글은 외국에서 이룩되어 온 연구의 일부만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 방향제시의 시도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I.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1840년대부터였다. 1843년 독불연감(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이 발간되기 시작했을 때 문학평론가 벨린스키(V.G. Belinskii)는 루게(Arnold Ruge)에게 축하의 서신을 보냈었으며(Masaryk, 1955, Vol. II: 290) 프루동(Joseph Proudhon)의 『빈곤의 철학』을 비판하는 『철학의 빈곤』을 마르크스가 처음 작성한 것은 러시아의 서구파 지식인으로서 오랜동안 그와 친교를 맺어 왔던 아넨코프(P.V. Annenkov)에게 보내는 서한의 형식으로서였다(Tucker, 1978: 136).

러시아 남부지방의 지주였던 사조노프(N.I. Sazonov)와 같이 이미 1840년대부터 마르크스의 추종자임을 자처하는 러시아인도 있었고(Berdyayev, 1948: 33) 마르크스와 러시아 국내 혁명가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로파틴(H. Lopatin)과의 친분도 일찌기부터 시작되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보다는 약간 연상이었던 러시아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그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재능있는 동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헤르젠, 벨린스키, 바쿠닌 등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첫 세대는 知的 배경에 있어 마르크스와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젊은 시절에 헤겔의 역사철학에 심취했었고 마르크스나 마찬가지로 헤르젠도 생시몽(Saint-Simon), 푸리에(Fourier) 등 이른바 “공

상적"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이론에도 깊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헤르젠이나 바쿠닌 등 서구에 망명해 있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知的 배경에서 뿐 아니라 신념에서도 西歐主義者들이었다. 니콜라이의 탄압정치 아래서 청년기를 지내왔던 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은 처절할 정도로 절박하고 성급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러시아의 운명은 유럽에서의 혁명과 자유의 진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믿었으며 적어도 1848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문화에 대한 그들의 흥미와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1848년 이후로도 러시아 지식인들의 관심은 마르크스보다는 푸리에나 프루동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페트라쉴프스키 씨클의 회원이었던 스페슈네프(N. Speshnew, 1828~82)는 마르크스의 『철학의 빈곤』을 읽고 일찍부터 마르크스의 사상에 감명을 받았으나(Walicki, 1980:156) 마르크스와 프루동의 논쟁에서 헤르젠은 프루동을 지원했으며 마르크스는 헤르젠에게서 범슬라브주의 경향이 엿보임을 개탄했다(Walicki, 1980:158). 1864년에 창립된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의 통솔권을 둘러싸고 마르크스와 무정부주의 혁명가 바쿠닌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것은 지적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던 러시아의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 사이에는 기질적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차이가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와의 접촉은 이처럼 그리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사상에 대한 러시아 지식인들의 열광적이고 헌신적 태도는 베르자예프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 특히 프롤레타리아의 사명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Berdyayev, 1948: 33). 이러한 접촉이 러시아에 대한 마르크스의 각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틀림없다. 마르크스는 러시아어를 공부해서 러시아어 간행물을 읽고 러시아에 관한 외국인들의 저술을 읽음으로써 러시아에 관해 알려고 노력했다. 특히 마르크스의 관심을 끈 것은 1861년 농노해방 이전까지는 러시아 농민공동체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퀘르니쉴프스키의 경제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그의 글을 통해 마르크스는 처음으로 러시아가 非자본주의적 통로를 통해 사회변화를 이룩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접하게 되었으며 퀘르니쉴프스키를 러시아인들 가운데 "유일한 독창적 지성"이라 칭찬했다(Walicki, 1980:190). 후에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질문 공세에 응하는 데 필요한 지적

기반이 이때 다져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마르크스와 러시아의 초기 사회주의자, 특히 유럽에 망명해 있는 지식인·혁명가들사이의 접촉은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나 사상가·이론가로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자본론』이 1867년에 발간되고 러시아어 번역판이 세계 최초의 번역판으로 1872년에 간행된 후부터였다. 『자본론』이 발간되기 이전까지는 러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저술 가운데 그리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발간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Hobsbawm, 1982:328). 「공산주의 선언문」을 제외하고는 1840년대에 발표되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논문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공동저술인 “Die Heilige Familie(1845)”, 엥겔스의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1845)” 마르크스의 “Misère de la Philosophie(1847)”, “Class Struggles in France”,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1859)” 등이 발간되었으나 널리 배포될 수 있는 형태로 재간행된 것은 많지 않았다. 국제노동자연맹을 위해 마련되었던 취임사(1864)와 「프랑스의 내란(1871)」만이 마르크스 생전에 여러 번 재판되었었다. 1875년을 기준으로 볼 때 1840년의 작품들은 이미 절판된 채 묻혀버린 상태였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술로서 쉽게 구해 볼 수 있던 것은 「공산주의 선언」과 『자본론』, 그리고 「프랑스의 내란」 등 뿐이었다. 정치나 군사문제를 다루는 엥겔스의 「反뒤링論」등 경제외적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사상을 담은 글들이 발표된 것은 1870년대 末부터였으며 1884년 마르크스의 사망 이후에야 엥겔스의 주도와 편집하에서 절판되었던 초기의 글 일부와 아직 미발간이었던 글,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엥겔스가 정리·해석한 글들이 발간되었었다(Hobsbawm, 1982:329).

사상서적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심했던 그 당시의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책이 방대하고 난해한 학술서적으로서 러시아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검열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었다(Resis, 1970:221). 러시아에서 『자본론』이 출판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후에 대표적인 인민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다니엘슨(Nikolai Danielson, Nikolai-on이라는 필명을 씀)이었다. 그의 주선하에서 바쿠닌과 뒤이어 로파틴이 1872년판의 번역을 맡았고 『자본론』 제 2권(1886)과 제 3권(1895)의 번역 및 제 1권의

2판의 번역(1898) 대부분은 다니엘슨이 직접 한 것이었다(Resis, 1970:221). 검열관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본론』은 출판되자마자 러시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책이 되었고 마르크스 자신으로부터 미묘한 반응을 자아냈다.

운명의 농간중의 하나는 독일어로 뿐 아니라 불어, 영어를 쓰면서까지 내가 계속해서 대적해 왔던 러시아인들은 항상 “나의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빠리에서 러시아의 귀족들은 나를 자기들의 어깨위에 떠메고 다녔었다. 프루동에 대한 나의 비판서 『철학의 빈곤』(1847)과 던커(Dunker)가 발간한 저술 『정치경제 비판』(1859)이 러시아에서처럼 많이 팔린 데가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본론』을 번역한 것도 러시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라다시절의 러시아 귀족들은 독일의 대학들과 빠리에서 교육을 받았었다. 그들은 언제나 西歐의 극단적 풍조를 좇아다닌다. 그것은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즐겼던 것같은 식도락일 뿐이다. “이것은 양복쟁이나 구두쟁이에게는 걸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테르는 자기의 계몽사상에 관해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러시아인들이 국가공적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악당으로 변하는 일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1968년 10월 12일 마르크스가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 재인용, Resis, 1970: 221).

러시아의 귀족출신 지식인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불신에 가득찬 논평은 1870년들의 잠계급출신(raznochintsy)러시아 지식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본론』이 잘 팔린다고 해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러시아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활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철학과 혁명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에서 본질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인민주의 운동의 실패라는 체험을 겪고 난 이후인 1880년대, 곧 『자본론』의 러시아판이 출판되고도 10년 이상이 경과된 후부터였다.

II. 초기 인민주의와 마르크스

러시아 역사에서 「인민주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낱말이다. 1870년대 초반에 러시아 사회내에서 일고 있던 급진적 민주화 운동은 그 전체가

다 인민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으리만큼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기의 러시아 인민주의란 어떤 뚜렷한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된 운동이었기보다는 공통된 정신적 자세와 풍토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1880년대와 90년대 플레하노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였으며 인민주의자라고 상대측에 의해 지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니엘스처럼 스스로를 보다 더 충실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한 태도는 인민주의 운동의 이른가중 한 사람이었던 스테파노비취(J. Stepanovich)가 1880년대 러시아내의 마르크스주의 씨클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데이취(Lev Deich)에게 1883년에 보냈던 다음의 편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

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왜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대조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 기본 원칙이 현대정치경제학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키레예프스키나 도스토예프스키가 생각하던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날의 인민주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건대 인민주의란 마르크스주의 원칙들을 어떤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것, 곧 어떤 특정한 나라의 정신적, 물리적 성격,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의 수준...등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西歐의 호전적 사회주의 정당의 당원으로서 안 되지만 이론가로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민주의자로서의 입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재인용, Haupt, 1980:270).

인민주의 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던 생각은 러시아에는 전제체제로 대표되는 官權 러시아와는 대조되는 農民의 러시아가 따로 존재하며 지식인들은 바로 이 농민의 러시아를 위해 헌신할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는 생각이었다. 1861년의 농노해방 조치에 대해 실망한 이래 러시아의 급진주의 지식인들은 전제체제의 타도와 사회주의의 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보존되어 왔던 농민공동체가 미래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인민주의자들은 농민공동체가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은 곧 러시아의 농민이 사유재산제도에 근거를 둔 서구식 개인주의에 감

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았으며 농민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농민들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향과 농민반란을 통해 보여주었던 혁명적 기질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서구에서보다도 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믿었다.

러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잠재력을 가진 농민을 계몽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혁명적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지식인들은 매우 고귀한 도덕적 사명을 지닌 것이었다. 그들은 바로 농민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귀족이나 지식인들로서의 자기들의 특권을 누려왔으므로 농민들의 계몽을 통해 혁명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이 조상때부터 대대로 짊어져 온 빛을 갚는 것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젊은 지식인들은 70년대에, 특히 1874년과 76년에 대대적 규모로 시도된 농촌계몽운동에 참여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민주의운동이 지녔던 하나의, 그리고 본래의 측면이었다. 그러나 인민주의라는 말은 농민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상실한 급진주의 인텔리겐찌야가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서 전개해 온 음모와 폭력의 혁명운동, 곧 「土地와 人民(Zemliai Volin)」과 「人民의 意志(Narodnaia Volia)」운동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인민에게로」의 구호를 외치며 농촌으로 몰려든 지식인들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냉담했을 뿐 아니라 거의 적대적이었으며, 그들을 선동할 수 있는 것은 취기린에서와 같이 그들의 의식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황제에 대한 숭배와 신뢰에 호소함으로써라는 사실을 체험을 한 인민주의자들은 그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농민에 의한 민주적 혁명의 길보다는 농민을 위해 소수의 직업적 혁명가들이 음모와 폭력의 수단을 동원하는 길을 채택했던 것이다.

1876년 이전의 인민주의 운동은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생각하며 계몽과 교육을 통한 그들의 혁명적 역량의 배양이 지식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점진주의적이었다. 그것에 반해 「인민의 의지」당으로 대표되는 인민주의 운동은 목적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었으나 수단에 있어서는 지극히 독재적이었다. 그러한 혁명조직은 전체체제에 대한 혐오 뿐 아니라 러시아의 민중 자체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경멸을 토대로 하고 있었으며 혁명의 성공, 곧 혁명세력에 의한 정권장악이 최상의 목표로 간주되는 가운데 다른 모든 윤리적 고려가 무시될 수 있는 혁명지상주의를 대표하고

있었다.

인민주의 운동은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그 운동은 1879년에 가서 결국은 마르크스주의쪽으로 기울게 되는 「흑토의 배분(Chernyi Peredel)」과 「인민의 의지」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나 그 두 갈래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특성은 농민에 대한 애착 및 보호주의적 태도, 그들에 대한 지식인의 강한 사명감, 그리고 계몽된 지식인들의 행동을 통해 역사의 방향이 조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곧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념과 강한 도덕적 사명감, 그리고 러시아의 특수성에 대한 긍지가 인민주의 운동의 특색이었으며 젊은이들에게 가지는 호소력이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러시아에서 출판된 것은 후에 인민주의의 고전이라고 인정받게 된 책들이 출판된 그 뒤를 이어서였다. 1868년에는 대학을 떠나 「인민에게로」 가기를 호소하는 바쿠닌의 유명한 글이 해외에서 발간되는 『人民의大意(Narodnoe Delo)』誌에 발표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라브로프(Pëtr Lavrov)의 『역사학적 서한』, 미하일로프스키(Nikolai Mikhailovskii, 1842~1904)의 『진보란 무엇인가?』, 플레로프스키(Flerovskii)의 『러시아의 노동자의 지위』가 출판되었다(Walicki, 1980). 인민주의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다져지고 혁명 운동으로서의 조직이 시작될 무렵에 서구의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분석서가 러시아 지식인들 앞에 제시된 것이었다.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지녔던 약점은 경제 현상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1860년대와 70년대에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들의 세대와는 달리 관념론을 배격하고 실증주의를 수용했으며 낭만주의를 거부하고 소박한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또한 1840년대의 러시아 지식인들과는 달리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흥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러시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러시아 나름으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찾을 수 있다는 데 대해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의에 비해 역사의 흐름이나 경제의 발전 양상에 대한 그들의 현실적 이해가 깊어진 것은 아니었고 사회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지적 관찰의 태도가 성숙된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 농민과 농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한 도덕적 고려에 근거를 둔 것이지 학문적 신빙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농민공동체는 국가정책상의 필요에서 보존되어 온 것이

지 농민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함이 이미 독일인 학스트하운젠이나 자유주의계열 법학자 취체린(B. Chicherin) 등에 의해 이미 지적되어 왔으나 그러한 논란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李仁浩, 1980: 68-69). 농민으로 대변되는 진정한 러시아를 위해 자기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열의와 확신에 불타고 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개인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쿠닌, 라브로프, 미하일로프스키 등의 이른바 「주관주의적」 사회이론만이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같이 서구에서 크게 가치를 인정받는 책도 결국 이미 집념이 되어 버린 자기들의 사명의식을 북돋아 주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러한 각도에서 수용되기 마련이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러시아 지식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조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유물론적 입장과 자본주의의 착취적 성격에 관한 상세한 서술때문이었다. 서구에서의 혁명의 진전과정,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과 부르조아지의 행동에 대해 이미 깊은 회의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러시아의 인민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미하일로프스키의 러시아 농민에 대한 서술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그의 소의 이론은 러시아는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희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했다. 폴란드의 지성사가 발리츠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도래를 방지함으로써 러시아의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러시아 인민주의 운동의 기본 이념으로 굳어진 것은 『자본론』의 영향하에서였다(Walicki, 1980:222).

자본주의의 악랄함을 입증함으로써 뿐 아니라 경제적 유물론을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듯했다. 경제적 기반에 의해 정치와 문화현상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달리 농민공동체를 토대로 한 자연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러시아는 서구의 부르조아지가 밟아온 것 같은 정치발전 노선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전제체제의 극심한 탄압하에서 자유를 위한 정치적 투쟁의 가능성을 전혀 부정당하고 있었으며 서구식 자유주의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던 인민주의 지식인들에게 이것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여러 면에서 러시아가 서구와는 다른 길로 사회주의에 도달해야 함을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1870년대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마르크스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와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심어주는 경제이론서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기틀이 러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반면 경제적 발전 단계에 관한 이론은 서구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따로 해석했던 것이다. 농민층으로 파고드는 지식인의 운동으로서, 그리고 음모적 혁명단체에 의한 폭력행위로서의 인민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자본론』이 러시아에서 출판된 후 8년간이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낙관적 해석은 분명히 아전인수격인 것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혁명의 개념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혁명의 개념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선명하게 노출된 것은 1874년과 75년 사이에 있었던 엥겔스와 트카초프(Petr N. Tkachev, 1844~86)의 논쟁을 통해서였다. 트카초프는 혁명적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던 바쿠닌이나 지식인에 의한 농민의 계몽과 교육을 통한 점진적 사회개혁론을 폄하했던 라브로프와는 달리 러시아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해 처음부터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 인민주의자는 아니었다(Hardy, 1977:217). 그러나 그는 모든 인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직접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그것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대표적인 러시아의 인민주의자였고 후에 해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였다.

1874년 엥겔스에게 보낸 트카초프의 공개서한에 의하면 러시아의 사정은 서구의 사정과 전혀 다른 독특한 것이었다(Hardy, 1977: 205-208). 자유언론도 대의기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러시아에 글을 깨우친 시민층도, 도시무산층도, 발달한 부르조아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정치적 투쟁의 전략은 전혀 통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전제정권이 과거의 전통에 의지하고 있을 뿐 뚜렷한 세력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었으며 자본주의가 아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민이 아직도 공동체생활을 통해 집산주의적 성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서구에서보다 높았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전제정권이 자본주의의 발달을 통해 새로운 세력

기반을 갖추기 전에 조속한 시일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혁명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조직된 소수의 지식인·혁명가들에 의한 쿠데타를 통해서이지 대중의 자발적 참여나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트카초프의 혁명이론은 좌아다에프에서 헤르젠, 퀘르니쉴프스키에 이르기까지 모든 러시아 지식인들을 무의식중에 매혹시키고 있던 「후진성의 이점」이라는 환상적 염원과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교묘하게 배합된 혁명이론이었다.

트카초프의 이러한 주장은 앵겔스로부터 경멸에 가득찬 반박을 불러 일으켰다. 앵겔스는 트카초프뿐 아니라 라브로프, 바쿠닌, 네차에프 등 서구에 망명해 있던 러시아의 혁명가나 혁명사상가들에 대해 대체로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쿠닌이나 네차에프를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인간들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트카초프에게는 사회주의에 관해 특히 용납될 수 없는 유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신랄한 공격을 가했다. 앵겔스의 견해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혁명을 성취하기가 좀 더 쉬우며 그 이유는 그곳에 진정한 프롤레타리아가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부르조아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사회주의의 ABC조차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Hardy, 1977: 209).

앵겔스에 따르면 러시아라고 해서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부르조아 정권,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의 성장, 혁명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하며 트카초프의 주장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이 즉각 성공할 수는 없었다. 혁명이 러시아에서 성공하려면 그것은 우선 부르조아 입헌주의와 자본주의를 수립시키기 위한 혁명이어야 하며 농민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긴 도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없었다(Tucker, 1978:670-673).

트카초프 자신은 앵겔스와의 논쟁을 계속하지 않고 라브로프와 자신과의 견해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활발해져 가고 있는 인민주의 운동에 대한 이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마르크

스의 이론과 러시아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열망을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다른 인민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발달의 불가피성에 대한 엥겔스의 이러한 단호한 결정론적 해석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었다. 만약에 사회주의의 성취를 위해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농민에게 고통스러운 부담을 안겨주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지지해야 된다는 뜻이 되며 그것은 농민의 지지를 근거로 하는 혁명운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매우 어려운 도덕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르크스 자신은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의 불가피성에 대해 엥겔스와 같이 단호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엥겔스 자신도 1870년대 말엽에 이르러서는 경제발전이 있어 유럽과는 다른 모델, 예를 들어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18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러시아의 인민주의 운동, 특히 「인민의 의지(Narodnaia Volia)」당의 활약의 성과에 감명을 받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러한 혁명운동에 격려를 보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자기들의 사상체계에 내포되어 있는 결정론적 입장을 일시적으로 완충시키려 했던 것이라 해석되기도 한다(Baron, 1963: 68; Walicki, 1980:408). 그러나 1877년에 미하일로프스키에게 보내기 위해 썼던 서한 뿐 아니라 4년 후에 다시 러시아 농민공동체와 사회주의로 가는 고유한 길의 가능성에 대한 자술리취(Vera Zasulich)의 문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마르크스는 러시아의 경제발달 과정은 서구와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미하일로프스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는 우선 서구의 경험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곳에는 자본주의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남이 불가피했으나 자본주의 그 자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Walicki, 1980:407). 1861년 농노해방 이래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에 러시아가 1861년 이래 밟고 있는 노정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어떤 나라에게 마련해 주었던 가장 훌륭한 기회를 상실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치명적인 불행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Pipes, 1970:47). 자술리취에게 보낸 서한의 초안에서는 마르크스가 러시아 농민공

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非자본주의적 발달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 보았음이 나타난다. 주변의 다른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까지 러시아는 농민공동체를 전국적으로 보존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조직을 발전시켜 국가적 규모의 공동생산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능은 활용하되 그 폐단은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러시아의 경제적 후진성이 자본주의의 시련을 경감시킬 수 있는 利點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 퀘르니슈토프스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만약 자본주의 체제를 예찬하는 러시아인들이 그러한 발전의 이론적 가능성을 否定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물겠다. 러시아가 서구와 같이 기계와 기선과 철로 등을 도입하려면 기계생산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긴 배태기를 거쳐야만 하는가? 동시에 그들은 내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있다. 러시아는 어떻게 서구가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냈던 교환의 기구장치 전체(은행, 신용조합 등등)를 한번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는가? (제인용 Pipes, 1970:48).

러시아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진단에는 사회분석가로서의 마르크스보다는 자본주의의 추악상을 혐오하며 역사를 고정된 틀 속에 넣기를 거부하는 인간주의자로서의 그의 일면이 노출되고 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의 특수성이 내포하는 利點에 대해 마르크스 자신이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자본주의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열망이 쉽게 포기되기는 어려웠었음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자본론』의 번역자로서 오래전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와의 서신 왕래를 하고 있던 다니엘슨은 러시아에서도 산업화는 불가피한 추세임을 인정했다. 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추진되어야 했다(Walicki, 1980:433-434). 그러나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산업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발해 놓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는 한편 외국의 시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와 같은 자본주의의 발달양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만

약에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노동과 생산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농민과 소생산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만을 수반할 것이었다. 선진외국의 시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산업을 육성시키는 동시에 소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국가가 적극적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길 밖에 없었다.

다니엘슨이나 『러시아 자본주의의 운명』(1882)의 저자인 보론토프(V.P. Vorontsov, 1847~1918)에 따르면 러시아가 불가피한 산업화의 길을 걷되 자본주의의, 그것도 후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의 폐단으로부터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일은 혁명세력들의 투쟁의 제 1차적 표적 인 전제정권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다니엘슨은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하며 엥겔스와의 조심스런 대화를 유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농민의 처지 그 자체 보다는 혁명에 초점을 맞추고 마르크스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던 다른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사회주의로 가는 「합법적」 통로를 제시하는 인민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처방이었다.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플레하노프는 말했다.

농민공동체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잠시 동안 가정을 보자. 그렇다면 니콜라이-온이 제창하는 개혁을 수행할 사람은 누구인가? 전제정권인가? 그런 개혁자들이 수행하는 개혁보다는 차라리 흑사병이 나올 것이다. 러시아의 경찰관들이 생산해 놓은 사회주의—그 얼마나 망친한 발상인가! (Walicki, 1980: 434).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혁명이 실제로 진전되어 온 과정을 돌이켜 생각할 때 합법적 인민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현실에서 그리 어긋난 생각은 아니었다. 발리츠키의 해석에 따르면 소생산자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경제발전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던 인민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레닌에 의해 수용되었을 뿐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성취된 것은 바로 전제체제의 타도에서 사회주의로의 직접적 전환이라는 인민주의자들의 꿈이었다 (Walicki, 1980:447-448). 그러나 그러한 전환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으며 그러한 치료는 병보다도 오히려 못하리라는, 러시아가 낳은 가장 탁월한 마

르크스주의 이론가가 된 플레하노프의 기우는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III. 마르크스주의의 재발견

1883년 플레하노프의 「노동의 해방」조직이 제네바에 결성되었을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반응은 적대적이라고 할 만큼 냉담했다.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 인식을 가지게 된 한편 유럽에서의 혁명의 전망이 밝지 못함을 느끼고 있던 그들은 혹시라도 러시아로부터 혁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인민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폭력주의적 투쟁방법을 포기하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의 노선을 새로이 채택하겠다는 러시아 지식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엥겔스 자신의 이러한 주저함에는 아랑곳없이 유럽의 혁명운동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1881년 황제의 암살과 그에 뒤따른 「인민의 의지」조직의 일망타진 후 완전한 좌절에 빠져 있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러시아에도 자본주의를 통한 사회주의의 달성을 약속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러시아 농민과 농민공동체의 사회주의적 가능성에 대해 무한한 기대를 걸었던 1870년대 초의 상황과 10년후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농민공동체는 이미 해체과정에 들어갔으며 산업화의 진전이 불가피함을 부정할 길이 없었다. 농민대중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태세에 대해 항거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한편 지식인들의 계몽활동에 대한 농민들의 부정적 반응은 농민들의 혁명적 자질 뿐 아니라 혁명적 지도세력으로서의 지식인들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깊은 회의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의 농민들은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지식인들의 행동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그들의 무지는 이제 지식인들의 동정보다는 혐오와 불신을 자아냈다(Mendel, 1961:121). 러시아의 농민 대중의 자질과 처지가 이처럼 동물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계몽을 통해 혁명의 주동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거나 또는 소수의 혁명가에 의한 권력장악의 방법을 통해 그들을 위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같이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러한 곤경에 빠진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결론은 매우 고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Mendel, 1961:104-105).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도래에 저항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의 발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으니만큼 이제 러시아에도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자본주의의 발전추세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부질없이 항거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을 통한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피한」 법칙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민주의자들과는 달리 농민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현재의 가혹한 현실은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불가결의 선행조건으로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피한」 것인 이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또한 법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자유주의자들과 협조하여 부르조아 혁명을 이룩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부르조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적 세력으로 육성강화 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며 점진적 세력팽창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권력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보하게 될 것이었다.

인민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글인 「사회주의와 정치적 투쟁」(1883), 「우리들의 견해 차이」(1884)에서 플레하노프는 특히 정치적 음모에 의한 권리쟁취를 실패하는 트카초프와 티호미로프(Tikhomirov)의 혁명전략을 공박했다(Plekhanov, 1900:91-92). 그러한 권력 장악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했지만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의식을 갖춘 시민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다시 불평등과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경향을 가진 체제로 환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헤르젠이나 쉼르니쉴프스키는 농민공동체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사회경제적 조직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라브로프의 지지자들은 선전을 통해 농민을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과장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부르조아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동운동을 통해 자율적인 해방운동의 체험을 쌓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고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생산관계에 대항해서 점진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확장하며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선언문이나 자유언론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에 대해 조그마한 관심도가

질 줄 모르는 농민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 활발한 노동운동을 통해 정당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서구의 노동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주동력이 될 「인민」이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플레하노프가 강조하고 있던 측면은 유물론적 역사발전 법칙의 예외없는 적용성과 혁명에 있어서의 민중의 자율적 참여였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오기 마련이지만 그것의 현실적 성취는 사회주의적 의식과 정치투쟁의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수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역사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지로 그것에 역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운동이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도래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에 따르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주의로의 길이 러시아에게 따로 있으며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관주의적 환상이었다(Plekhanov, 1900:95).

플레하노프는 러시아도 서구나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거쳐 사회주의로 전환해야 되며 농민이 아닌 노동자 계급만이 혁명을 사회주의의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 트카초프에 대한 엥겔스의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에로의 전환과정과 다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고통을 감축시키고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로 다시 귀결되는 것이었다. 플레하노프는 이론가이기에 앞서 혁명가였으며 그도 다른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경제발달에 있어 후진인 러시아는 혁명적 여건의 성숙을 위해서 서구보다도 더 오랜 시일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그대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러시아는 아직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의식이 싹틔으며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구사회가 가지지 못했던 다른 혁명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우리에게는 개인의 자유란 역사를 포함한 자연의 법칙들에 관한 지식과 그러한 법칙들에 순종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 즉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법칙들을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조합시키는 능력을 뜻한다 (재인용, Mendel, 1961:113).

곧 자연과 역사는 여러 가지 불굴의 법칙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지만 그러한 법칙들이 무엇인가를 미리 터득하고 적절하게 배합시켜 활용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풀이가 될 수 있다. 플레하노프에게는 이처럼 마르크스주의 결정론이 자유의지나 혁명적 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주의의 수립이 러시아에서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서구의 시민사회가 보여주는 정도의 정치적 성숙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발전법칙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음모나 테러 등의 수단을 포기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세력의 그늘 밑에서 그들을 도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혁명의지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절박한 현실적 문제에 시달림을 받는 러시아의 민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 이상 다른 아무런 위안도 없다면 민중이 구태여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야가 것처럼 오랜 동안 강렬하게 표명해 온 혁명의지와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약속을 절충시키는 길은 역사법칙에 대한 창조적 해석의 가능성과 의지적 행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곧 역사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는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역할, 다시 말하면 黨의 제도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부르조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직된 노동자정당이 부르조아지와 협조함으로써 혁명을 촉진시키되 부르조아 혁명이 성공하는 즉시 주도권을 부르조아지로부터 장악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전략으로 러시아에서는 해석될 수 있었다 (Mendel, 1961:114-115). 그러나 이 길은 민중이 자율적인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소수의 마르크스주의 엘리트에 의해 혁명이 수행되고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민주적 성격이 상실되고 마는 비극을 낳을 염려를 안고 있었다.

플레하노프는 이미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향 초기에 러시아 사회민주주의가 봉착하게 될 위험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의 해석 가운데에서 역사법칙의 불가피성과 민중의 자율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멘셰비즘을 낳게 되고 자유의지와 혁명적 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인정은 볼셰비즘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플레하노프 자신은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난 그의 행동은 때로는 불가사이하하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1890년대에 드디어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활발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그는 레닌이나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들의 독자적 활동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수정주의와 경제주의를 강력히 배격했으며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당 제 2차 전당대회에서도 대중정당 대신에 직업적 혁명가로 조직된 중앙집권적 黨체제를 요구하는 레닌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후 그는 곧 마르토프,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레닌의 「자코뱅」적 태도를 맹렬히 공격했으며 민주주의적 원칙의 준수를 설파했다. 반면에 그는 黨의 지하조직을 포기하고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합법적 정치조직으로써 활동할 것을 주장하는 멘셰비키黨내의 「청산주의파」에 반대했는가 하면 1907년에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10월의 레닌의 쿠데타를 비난함으로써 또 다시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1912년부터 그는 실제로는 黨조직을 떠나 집필생활에 몰두했으며 그것은 그가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이 러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Mararyk, 1955: 300).

플레하노프와 그의 동지들은 스위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인민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역사발전단계이론이 러시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인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러시아 특유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러시아내에서 그 두 갈래의 사회주의 운동 사이의 구분이 그처럼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기까지는 또 다시 십 년이 더 걸려야 했다. 인민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라살, 마르크스, 베벨 등의 저술을 배포하는 데 열심이었는데 가 하면 사회민주주의자임을 일찍부터 선언했던 블라고예프 등은 농민공동체와 폭력주의적 수단에 대해 인민주의자들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Pipes, 1963:13).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의식을 가진 모든 젊은이들을 휩쓰는 강력한 知的 조류가 된 것은 1892년 『러시아사상(Russkaia Mysl)』과 『러시아의 富(Russkoe Oogatstvo)』誌에서 미하일로프스키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을 계기로 플레하노프, 스트루베, 레닌 등이 각기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주요 논저를 발간한 후부터였다(Pipes, 1963:12). 1893년 니콜라이-온의 「개혁 후의 우리 경제」를 비판

하는 글에서 스트루베(P.B. Struve)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입장을 밝힌 데 뒤이어 1894년 4월에는 인민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한 레닌의 「누가 인민의 친구인가?」가 발표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스트루베의 「비판적 논평」이, 12월에는 플레하노프의 「역사에 대한 一元論的 견해」가 각기 발표되었다. 그중에서도 「노련한 언론인의 강력하고 확신에 가득찬 어조와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던 플레하노프의 책은 충격적인 효과를 가졌으며 많은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서 마르크스주의로 전향시키는 효과를 가졌다(Mendel, 1961: 126). 합법적인 민주주의자들과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1890년대에 벌어졌던 논쟁은 30년대와 40년대의 서구파와 친슬라브파간의 논쟁을 상기시킬 만큼 지식인들의 정력과 주의를 집중시켰던 논쟁이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측이었다. 후에 사회혁명당의 지도자가 된 첼르노프(V. Chernov)의 회고록에 의하면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당시(90년대) 세 세대의 「思想的 支配者」들이었으며 그러한 조류에 역행하는 일은 완전한 실패에 부딪치게 마련이었다(제인용, Mendel, 1961:129).

1890년대에 들어 마르크스주의가 이처럼 큰 호소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에로 관심이 기울어지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1890년대 초에 있었던 농촌의 심각한 기근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인텔리겐찌야는 1880년대의 침체에서 깨어나 다시 혁명 활동을 개시했으나 농민들의 반응은 놀라우리만큼 수동적이었다. 굶주리고 있는 대중의 「원시적 야만성과 침투할 수 없는 어두움」은 지식인들에게 잔인한 실망을 안겨주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설득작전의 대상이 되도록 심리적인 준비를 시켰다”고 첼르노프는 말하고 있다(Mendel, 1961:121). 농민 대중의 이러한 수동적 태도에 비해 재무대신 위태의 산업화 계획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노동자층은 혁명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1895년에는 마르토프와 레닌 등이 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혁명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1890년대에 마르크스주의가 이처럼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다시 혁명이론으로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 지식인이면 누구나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흠모의 열원 및 자기를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숭고한 목적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 갈구 양 쪽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상체계로서였다(Treadgold, 1973, Vol. I :221). 마르크스주의 공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야만적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유럽으로, 곧 유럽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보존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가 꽃피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음이 약속되는 것이었으며 인텔리겐찌야는 드디어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大義와 宗教를 다시 찾은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또한 순수한 知的 차원에서도 극단적 관념론과 실증주의의 사이를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 지성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Mendel, 1961:132-134).

189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운동에서 선두에 선 것은 대학을 갓 졸업한 지식인들로서 스트루베, 투간-바라노프스키(Tugan-Baranovskii), 불가코프(M. Bulgakov), 베르자예프(N. Berdyaev)와 같이 매우 다양한 사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공중의 눈에 「마르크스주의자」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들로서 지면이나 자유경제협회(Volnoe Ekonomicheskoe Obshchestvo)가 주최하는 공개토론석상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와 합법적 인민주의의 입장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 그들이었다. 그 당시까지도 러시아의 경찰은 폭력과 음모의 수단을 동원하여 혁명활동을 하는 인민주의 계열의 혁명씨클들에 비해 이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는 크게 위협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수 있었다.

대학출신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며 그들을 조직화시키는 일을 담당한 것은 대학보다는 기술전문학교에 모여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독자적 사상가가 될 만한 지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대신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런 기술전문학교 출신이었던 크라신(V. Krasin)의 씨클 회원들이 후에 레닌의 볼셰비키 지지자들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다(Pipes, 1963:32; Mendel, 1961:124-125).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적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시사잡지의 논평에서 나타나듯이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은 그 반대 이유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었다.

사고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미 사고되어 있었고

썩어서 입에 넣어지고 있었다. 남은 일이란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실망할 염려가 없이 완전한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환상적 이상향에는 종말이 왔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었다. “삶의 궁핍과 불완전성”에 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굶주리고 있으며 더욱 더 험벗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길임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어떤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마르크스주의)이 그것이었다(Mendel, 1961:164).

1890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러시아 지식인들의 관심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강렬했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적어도 네 가지의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며 수용되고 있었다. 첫째 그것은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경제 분석 이론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수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투간-바라노프스키의 러시아 공장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는가 하면 왕당파 계열의 지베르의 손에서는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Walicki, 1980: 436-437). 둘째로 그것은 경제적 유물론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이론으로서 혁명적 낭만주의나 트카초프식의 혁명적 자코뱅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적 성향의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그것 자체가 서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발전단계이론이 러시아에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라는 주장을 자동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반드시 혁명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경고로서 받아들이고자 했다.

셋째, 1890년대 후반기부터 점점 더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게 된 국면이 혁명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였다. 혁명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자본주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성숙과 극복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데에는 異論이 없었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하며 혁명적 엘리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기본적으로는 견해의 일치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혁명전략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에어푸르트 강령이 채택된 이래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추구하던 것과 같은 점진주의

적 접근방식을 주창하는 측과 폭력수단을 동원하는 계급투쟁의 방식을 채택 하자는 입장과 사이에 매우 넓은 폭의 견해차가 있었으며 개개인이 선택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동요가 심했다. 레닌의 경우를 볼 때 그는 본래 자코뱅 식 인민주의자로 혁명 씨클에 가담했다가 1892~93년에 이르러 농민의 혁명적 역량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는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했다. 그는 처음에는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1895년에는 마르토프와 함께 「투쟁연맹(Soiuz Borby)」을 조직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전과 선동활동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혁명적 성격을 가지는 대신 소시민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안주해 버리는 것을 보고 레닌은 노동자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해서도 신뢰를 상실했으며 1899년부터는 다시 혁명적 엘리트의 역할에 전적으로 기대를 거는 자코뱅주의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Pipes, 1963: 46-47, 55). 객관적 역사법칙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시각에서 역사적 사태에 대처할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으며 프롤레타리아의 대변자로서의 혁명적 전위대가 강력한 지도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저술 가운데에서도 레닌이 가장 즐겨 인용한 것은 1848~1852년과 1871년 유럽의 혁명적 격동기에 출간되었던 저술들이었으며 그는 마르크스보다는 엥겔스를 더욱 즐겨 인용했다(Wolfe, 1969:14).

레닌과 정반대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이가 스투루베였다. 본래 그는 레닌과 함께 기본적으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정치적 투쟁의 길을 택하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스투루베에게는 마르크스주의의 매력은 그것이 서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문화와 물질생활이 사회정의 및 자유와 배합되는 사회주의 미래를 약속한다는 데 있었지 계급투쟁의 이론 그 자체로서가 아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본주의가 가져다 주는 혜택이 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독일의 베른슈타인 보다도 앞서서 점진적 발전을 통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의 개선을 폭력혁명을 통한 권력쟁취보다 더 중요한 목표로 해석하게 되는 「수정주의」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었으며 자본주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다(Pipes, 1970:224-226). 1898년 민스크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창당대회의 선언문을 쓴 사람이 스투

루베였으나 그는 결국 자유주의와 관념주의로 전향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카우츠키와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베른슈타인은 사회민주당의 테두리내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투루베는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스투루베 자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 레닌주의의 성격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궁극적 목표로서의 정의나 자유의 문제보다는 그것으로 향하는 도정에서의 권력장악의 전략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수용했으며 인민주의로부터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한 강조 및 트카초프의 자코뱅주의를 받아들였던 레닌의 승리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승리단은 아니었다. 레닌과 스투루베의 중간 입장을 취했던 멘셰비키의 패배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이상과 러시아적 현실 사이의 거리는, 혁명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던 모든 러시아 지식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1890년대에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형이상학 및 인식론의 체계 또는 종교적 신앙의 전도된 형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혁명적 인텔리겐찌야의 도덕적 허무주의와 편협한 실증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1880년대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예술을 위한 예술」운동이 일어났으며 종교에 대한 새로운 갈구가 생겼었다. 이들에게 마르크스주의는 궁극적 진리에 대한 동경과 불완전한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반항자의 요구를 시켜줄 만한 정신적 혁명을 의미했다. 베르자예프의 말을 빌리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신적 혁명의 전망이었다. 세상의 무의미함과 노예상태와 무거운 부담에 항거해서 자유와 의미가, 정신이 깨어남을 뜻했다. 사실 나는 정치적 혁명가로서는 별것이 아니었고 그 면에서는 별로 활동적이 아니었다... 혁명적 충동은 세계질서에 동조하고 그것의 절박한 요구에 복종하지를 못하는 생태적 기질로부터 우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이기보다는 개인적 의미를 가졌었다. 나는 인민이나 대중보다도 인격의 혁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Berdyayev, 재인용, Mendel, 1961:141).

베르자예프 뿐 아니라 불가코프, 메레쥬코프스키(D.M. Merezhkovskii), 발몬트(K.D. Balmont), 부류소프(V. Ia. Briusov) 등 당대의 선구적 문인들

의 대다수가 청년기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었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칸트 혹은 니체의 사상과 절충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Kline, 1900: 179). 베르자예프나 불가코프 등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신칸트주의를 거쳐 러시아정교로 귀의했으며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초에 있었던 종교적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보그다노프, 고르키, 루나차르스키 등은 불세비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에서도 도덕과 예술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레닌은 1908년에 「유물론과 경험비평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그들의 입장을 「神의 建設」을 도모하는 이단설이라 혹심하게 비방했으나 소련정권 초기에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루나차르스키의 공헌은 대단히 컸다(Holter, 1970:262-265).

1890년대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읽어내려 했던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는 물론 모두가 다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할만큼 다양했다. 단지 혁명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철학사상체계로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던 지식인들 대다수에게는 그것은 종교적 교리와 같은 최종적 진리이기보다는 인생이나 역사에 관해 그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하나의 중요한 도정이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독창적 사상가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 신칸트주의나 그 밖의 다른 철학적 입장으로 옮겨갔으며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러시아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작업은 철학자이기보다는 혁명가인 레닌이나 트로츠키 등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IV. 결 론

러시아에서 혁명운동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1903년 제 2차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서부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1890년대에 인민주의 이론가들과의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지식인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黨과 결별한 후 관념주의로의 전환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던 것과 일치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레닌과 동세대에 속하는 스트루루베, 불가코프, 베르자예프 등은 혁명 그 자체보다는 그 혁명이 약속하는 인간해방의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사회

주의 뿐 아니라 다른 계열의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이 공통으로 보이는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는 철학적 탐색에 몰두했다.

제 2 차 사회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서의 레닌의 승리는 단순히 역사발전단계설에 대한 해석에서의 점진주의적 입장의 패배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중의 자발성에 대한 혁명적 엘리트의 의지적 행동의 우선성 및 마르토프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당에 의한 계엄적 독재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의미했다. 그러한 당의 「正統的」 입장에 반대해서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당지도자의 판단 이외에는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대한 충실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척도가 따로 인정될 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서 러시아에서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크게 존경받던 플레하노프까지도 결국 레닌과 결별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에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변형이며 정치적 승자가 된 입장이었을 뿐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해방을 목표로 추구하려 했던 사상체계의 가장 적절한 수용 자세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參 考 文 獻〉

李仁浩

1980 「체르니셰프스키와 농민공동체」, 『러시아지성사연구』, 知識産業社.

Baron, Samuel H.

1963 *Plekhanov,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erdyaev, Nicolas

1948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Ann Arbor, Free Press

Hardy, Deborah

1977 *Peter Tkachev, The Critic as Jacobin*, Seattle, Pergamon

Haupt, Georges

1982 "Marx and Marxism," in Hobsbawm (ed.) *The History of Marxism*, Bloomington.

Hobsbawm, Eric

1982 "The Fortunes of Marx's and Engels Writings" in Hobsbawm(ed.), *The History of Marxism, Volume One: Marxism in Marx's Day*, Bloomington.

Hoter, Howard R.

1970 "The Legacy of Lunacharsky and Artistic Freedom in the USSR," *Slavic Review*, June, 262-265.

- Kline, George L.
 1900 "The Nietzschean Marxism of Stanislay Volsky," *Western Philosophical Systems in Russian Literatur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eries in Slavic Humanities, No. 3, Los Angeles.
- Masaryk, Thomas G.
 1955 *The Spirit of Russia*, 2 vols., London, George Allen Unwin, Ltd.
- Mendel, Arthur P.
 1961 *Dilemma of Progress in Tsarist Russia, Legal Marxism and Legal Popul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Pipes, Richard
 1963 *Social Democracy and the St. Petersburg Labor Movement, 1885~1895*,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1970 *Struve, Liberal on the Left, 1870~1905*,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Resis, Albert
 1970 "Das Kapital Comes to Russia," *Slavic Review*, June.
- Treadgold, Donald
 1973 *The West in Russia and China*, Vol. I.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Tucker, Robert(ed.)
 1978 *The Marx-Engels Reader*, New York, W.W. Nort.
- Walicki, Andrzej
 1980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Oxford, Clarendon Press
- Wolfe, Bertram D.
 1969 *An Ideology in Power*, New York, Stein and Day.